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6:00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817-721-5050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랜, 맥키니 미정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십자가의 모후 (화) 6:00 PM	구리아 (셋째 일) 12:30 PM	캐롤튼 908-770-8694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벨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코펠 469-231-2002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480-465-385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자비의 모후 (토) 6:15 PM	콜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황금궁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214-681-4225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469-925-9343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W. 프리스코 469-831-6531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E. 플레노 214-316-0701
토마스회, 30대 (셋째 토) 4 P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이나시오영성 (월, 수, 목) 8 PM	W. 플레노 972-544-8703
주일학교&청소년 (일) 10:00 AM-11:15 AM	승리의 모후 (목) 6:10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리차드슨 214-701-7688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밸리랜치 214-664-0158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복자재속회 (셋째 일) 5 PM	

교우 업체 소개

<p>Smartec 보안카메라/네트워크/오디오/비디오 설치, 수리 및 관리 전문 업체 우병태 라우렌시오 Tel 214-629-2663 info1@onesmartec.com</p>	<p>노바 덴탈 김하운 소피아 Tel (817) 462-1022 1231 E. Pioneer Pkwy #101 Arlington, TX 76010</p>	<p>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p>Celebration Co. Wedding, First Communion, Baptism, Prom, Special Occasions 11818 Harry Hines #224 Dallas 972-243-2400 www.celebrationdallas.com MON-SAT 10:30-7</p>
<p>NCCDP National Council of Certified Dementia Practitioners '도란도란' 토요일봉사센터 Memory Focused Day Care (972) 506-0177 (자원 봉사자모집) 은혜복지센터/KAS협력 www.gracedahs.org</p>	<p>정관장 홍심 달라스 직매점 캐롤튼 H 마트 후문 앞 (214) 483-3838</p>	<p>OK 에어컨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p>E & 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p>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p>루시에어로빅스 Aerobics, K-pop Zumba, Pilates, Yoga 루시 김 : 972-795-9706 (오전반) 캐롤튼 2640 Old Denton Rd. #200 Carrollton (오후반) 달라스 한인 문화센터 11500 N Stemmons Fwy. #185 Dallas</p>	<p>한라산소주, 대선 화요, 좋은데이 텍사스 총판 Tel 917-794-9684 min@eveenterprisellc.com</p>	<p>메디케어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플랜 은퇴연금, 롱텀케어, 생명보험상담 유니스 안 (수산나) Tel 469-777-2856 coverus21@gmail.com</p>
<p>조앤박부동산 주택, 세입, 이주 정착 솔루션 서비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이전트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p>	<p>MDMartin 스태핑, 컨설팅 MARK LEE 사이트 매니저먼트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p>Shine Learning Center CHRISTY LEE 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 214-716-7913 Frisco Campus : 469-535-3333</p>	<p>홍신희중합치과 Midway Dental Fastbraces로 치아교정 3-12개월 (972) 241-6862 (972) 800-0448 (Cell) 13740 Midway Rd #506 Dallas, TX 75244</p>
<p>북나리 Book Nara 캐롤튼 H마트 몰 7 days open Tel 972-245-2665 이건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p>	<p>Texas Back Institute (TBI) 정형외과 척추(어리, 경추)전문 Dr. 안준영 (Junyoung Ahn) 469-390-6600 info@texasback.com 500 W. Main St. #380 Lewisville, TX 75057</p>	<p>맑음 헤어살롱 Hair Salon Tel 972-693-6247 코마트 옆</p>	<p>앤드류정 부동산 주택/뉴빌더홈 주거용토지/투자용부동산 Cell 214-663-8266 Ac.txrealtor@gmail.com 3370 Long Prairie Rd #650 Flower Mound, TX 75022</p>



달라스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2024년 6월 23일

연중 제12주일

제 259920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 1 독서]

욥기 38,1.8-11

[화답송]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제 2 독서]

코린토 2서 5,14-1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4,35-41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생활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2	219, 220	167, 168	59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목	7:30 PM 한국어
	수·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고해실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이체칠리아,한베로니카 214-762-5794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한재민 야고보 214-475-0619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성경 공부반	일 11:00AM - 12:15 PM
사무실 업무시간	수 7:00 PM (남성반) 이요한 부제
	수 11:00 AM 이체칠리아 수녀
	수 11:00 AM 박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강론



연중 제12 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모의 밤, 첫 영성체, 청소년 음악회, 구역미사, 성령강림 찬양의 밤, 사제 서품식, 중남부 남성 제17차 꾸르실료, 견진성사, 주일학교 여름 캠프, 포트워스 성당 주일미사’가 있었습니다. 포트워스 성당 신부님이 비자 연장을 위해 1달 동안 한국으로 가셨고, 포트워스 성당 미사를 도와 드려야 했습니다. 행사가 겹친 날도 있었습니다. 첫 영성체와 청소년 음악회가 같은 날 있었고, 꾸르실료와 견진성사도 같은 날 있었습니다. 어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행사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서품식입니다. 한국의 사제서품식이 질서정연하다면 미국의 사제서품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서품식 중에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새 사제들과 친교의 포옹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배 사제들은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포옹하였고, 새 사제들은 활짝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강림 찬양의 밤입니다. 짧은 시간에 음악 봉사자들이 연주와 노래를 준비하였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본당에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우다떼’ 찬양 팀이 음악피정도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입니다. 심한 풍랑에 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 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

수님께서서는 풍랑을 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998년 26년 전의 일입니다. 동생 수녀님이 백령도 성당에 있었고, 백령도 성당의 신부님이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동생 수녀님도 보고 동창 신부님도 보기 위해 연안부두에서 백령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임당수’라고 중간 짐을 때입니다. 선장의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 다. 풍랑이 심해졌는데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백령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풍랑이 거세지면서 사람들은 배 멀미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해병들도 멀미하였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멀미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백령도 주민들은 대부분 별 이상 없이 멀쩡하였습니다. 풍랑이 거세지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바닥에 누웠습니다. 저도 따라서 바닥에 누워보니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습니다. ‘불난 곳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욕망의 풍랑이 불곤 합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은 지나갔습니다. 일정표의 31칸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31칸을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하느님의 나라에 그 날들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31칸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채웠다면 옛것으로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것은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것 또한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새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시간은 언제나 옛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

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30칸이 비워있는 6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사제에게 필요한 덕목이 3가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표징을 읽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함께한다는 말처럼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의로움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제, 공부하는 사제, 건강한 사제는 30칸의 날에 늘 새것을 채울 것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난날들에 옛것을 채웠다면 남은 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것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공 지 사 항

2024년 사목 목표 "친교의 공동체"

1.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2. 성오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3. 매일 오후 3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에 적극 참여.

윤중훈 세례자요한 부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미사: 6/23(일)
10시 미사 (미사 후 무료 점심 제공)
* 교우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제 4회 본당 신부님배 골프 대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9/3, 화) 준비를 위한 행사.
일시 : 6/30 (일) 오후 1시
장소 : Hackberry Creek Country Club
참가비 : \$120 (신청은 사무실)

문의 : 고광범 사도요한 469-387-9541
마감 : 6/26 (수) 오후 6시
시합 후 본당 친교실에서 시상 및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점심 봉사가 여름 한 달간은 없습니다. (6/30일부터 7/28일까지 점심 봉사 없음)
- 주방의 냉장고와 냉동고의 음식물은 치워주시고, 레지오 단원들은 꽃병과 꽃들을 정리하시고 청소해주시시오.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옥(크리스티나), 엄찬길(찰스), 오현정 (클라라), 이정구(바오로), 강경순(요안나), 마하해(스텔라), 윤지희(미카엘라), 전용환(요한), 김정자 (유리엘), 김성희 (글로리아), 정영철 (사베리오), 이규식, 이예린 (세실리아), 하정희 (올리아), 이상원 (스테파노), 기길자 (루치아) 김외분 (프란체스카), 정상옥 (젬마) 손이재 (요셉), 손현윤 (가브리엘) 손현식 (미카엘)



예수 성심에 관하여....

예수 성심을 교회가 공인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된 획기적인 계기는 1673년 12월 27일에 일어난 예수님 발현이었다. 당시 프랑스 방문회 수녀였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Margaret Mary Alacoque, 1647~1690) 성녀에게 예수님이 발현한 것이다. 1675년까지 2년간 70회나 발현한 예수님은 성녀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내 거룩한 마음은 인간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성심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홍수를 퍼부어 성덕과 구원 은총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내려 한다.” 예수님은 또 당신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당신께 영광을 바치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약속했다. “나는 성체 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내 성심을 공경하는 날로 정하기를 원한다. 그 날 영성체하는 영혼들은 내 성심에서 사랑의 은총을 홍수처럼 풍부하게 얻게 될 것이다.”

건축헌금		교무금					
Joseph Traylor Jr. (3)		민지혜, 주재억, 전기숙, 노정식, 임원범, #36148, 이상엽, 유길종, 박연주, 제이 정, 심윤정, 김희성, 김지혜, 손다연, 이모세, 주가현, 인덕 리사이, 정성문, 윤영복, 윤종건, 이제훈, 김원희, 정우진, 임승수, 송수복, 조성환, 정호안, 쉐리 킴 페트릭, 김덕원, 이동호, 오영주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78,128.01	건축	\$3.00	교무금	\$3,220.00	주일 헌금	\$4,555.00
일반 계정	\$367,530.80	재해 헌금	\$375.00	교구 결혼 비용	\$50.00	주일 총액	\$8,203.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30명 수 25명 목 18명 금 33명	화 30명 수 25명 목 18명 금 33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64명 10시 344명 12시 140명 3시 54명					주일 합계	602명